

# 민선9기 첫 기업 현장 소통 나서

### 조지훈 전주시장, AI·ICT 기업인들과 간담회 갖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현장 의견 수렴

조지훈 전주시장이 피지컬AI 등 미래 신산업으로 각광 받는 AI·ICT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으로 민선9기 첫 기업 현장 행정에 나섰다. 조지훈 시장은 2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전주지역 AI·ICT 기업 대표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청취했다.

조 시장은 이어 지역 피지컬AI 전문 기업인 (주)벨로스(대표 황근별)를 방문해 기업 현장의 실태를 살피고, 다기능 로봇 통합관제 플랫폼 시연을 참관하며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번 기업 현장 방문은 민선9기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중심 시장'을 실현하겠다는 조 시장의 시장 철학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특히 조 시장은 이날 첫 행보는 AI 산업의 최일선에 있는 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이를 민선9기 산업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조지훈 전주시장이 피지컬AI 등 미래 신산업으로 각광 받는 AI·ICT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으로 민선9기 첫 기업 현장 행정에 나섰다.

먼저 조 시장은 전주지역 AI·ICT 분야 16개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기업 성장 기반 마련 등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이날 제안된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하고, 기

캠프를 개발해 관련 산업을 선도하고 48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 기업은 경찰청 공공안전 피지컬AI 실증 사업 등에 참여하는 등 AI 기술의 산업 현장 적용을 확대하며 지역 미래산업을 이끌고 있다.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피지컬AI가 제조와 로봇, 모빌리티, 물류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을 이끌 미래 핵심 산업을 강조하며, 기업이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갈 수 있는 산업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AI 혁명을 통해 시민의 삶을 더욱 중요하게 하고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것이 전주시가 만들어갈 미래이며, 앞으로 기업이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대한민국 AI 산업 수도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피지컬AI를 미래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AI 산업 생태계를 꼭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는 물 관리 총력

###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수도정비계획 등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전주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물 관리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김인택)는 도시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지역의 물 사용량을 예측하고, 수도 시설에 대한 확충·정비를 통해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도 관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은 수도법 제5조(수도정비계획)와 제6조(물수요관리시행계획), 제74조(기술진단)에 따른 법정 사무로, 시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28억 원을 투입해 3종류의 용역을 통합해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수도 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한 '수도 정비계획'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상 장애 인구 지표와 국가수도기본계획 방침의 정합성을 이루는 수도 정비에 관한 종합계획이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서신동 갈나무골 재개발 등 25개 개발 사업에 대한 물 수요량 등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물수요관리시행계획'은 1인당 일일 물 사용 목표 설정 및 물 절약 등에 관한 내용으로, 시는 △건축 허

가 시 절수 기기 보급 유도 △빗물 재이용 확충 등에 관한 실천 계획을 갖고 있다.

마지막 '수도시설 기술진단'은 펌프장 등 시설물의 기능과 상수관망의 수량, 수압, 수질, 물리적 안정성 등을 평가해 노후 상수관 교체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용역이다.

수도시설 기술진단의 대표사업은 노후관을 정비하는 '맑은물공급사업'으로, 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092억 원을 투입해 776km의 노후관로를 정비했다.

현재 진행 중인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4차 공사의 경우 총 215억 원을 투입해 35km의 관로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며, 시는 내년 상반기 중 4차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인택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은 "수돗물은 시민들의 건강, 안전, 일상 생활 편의와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면서 중요한 공공서비스"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전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는 배수지 10개소와 수도관 3065km, 계량기 24만 6920개를 통해 하루 평균 23만8000톤의 먹는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 전주시의회 신임 의장에 최주만 의원·부의장 김동현 의원 선출

### 전반기 의원 상임위원회도 배정

제13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신임 의장에 최주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서학, 서서학, 평화·2동), 부의장에 김동현(더불어민주당, 삼천1·2·3, 효자1동) 의원이 선출됐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전날 오전 제13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최주만 의원, 부의장에 같은 당의 3선 김동현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의장단의 임기는 오는 2028년 6월까지 2년간이다.

신임 최 의장은 제7대, 8대, 12대를

거쳐 이번에 4선에 올랐다. 특히 그는 8대 의회에서는 문화경제위원장, 12대 의회 후반기에는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 부의장은 제11대와 12대에 이은 3선 의원으로 12대 의회 전반기에 운영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시의회는 상임위원회 배정도 완료하고 원구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시의회는 2일 오전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위원회 의원으로 김윤철, 양영환, 최명철, 최영심, 김운수, 최명권, 김수민, 이수진 등 8명의 의원을 확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도문, 조우영,

김정명, 채영병, 경현철, 은혜정, 최한별, 신인철, 정승인 의원 등 9명이 역할을 맡았다.

문화경제위원회는 채민석, 최용철, 장병익, 진연재, 김성규, 이성국, 최지선 의원으로 12대 의회 전반기에 운영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남숙, 김동현, 김현태, 전준미, 홍대규, 최서연, 은영표, 김인철, 신유정 등 9명의 의원이 활동한다.

운영위원회는 각 위원회에서 추천된 의원 8명과 의장 추천 1명 등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배정 의원은 은혜정, 김수민, 이수진, 정승인, 조우영,

최용철, 채민석, 홍대규, 이남숙 의원이다.

시의회는 이날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을 앞두고 전날 오후, 신임 최주만 의장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 속에 더불어민주당 김성규 원내대표와 혁신진 보시민연대 경현철 원내대표가 만나 교섭단체간의 협력 관계를 조율했다.

특히 최 의장과 김성규, 경현철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배려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각 의원의 효율적인 위원회 배정이 먼저라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시의회는 이날 상임위원회 배정에 이어 3일에는 각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을 선출한다. /이만호 기자

# 전주시, 전북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대상'

전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하며 지방세입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 징수를 △과년도 체납액 정리 실적 △징수사책 추

진 성과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시·군이 가려졌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정기분 지방세의 안정적인 징수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기법 운영,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세입 확충과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시는 체납자의 재산조사와 채권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행정을 병행해 징수 실효성을 높였다.

또, 정기적인 체납자료 정비와 신속

한 체납처분, 납세 안내 강화 등 체계적인 징수행정을 추진해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에 힘써 왔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상 수상은 시 세정과와 완산·덕진구청 세부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방세징 확충이라는 목표 달성과 시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세정행정을 추진한 결과물로 풀이된다.

/이만호 기자

# '전주시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 시 상하수도본부, 수돗물 정보·수질검사결과 제공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김인택)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향상과 다양한 응용 정보 제공을 위한 '2026년 전주시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검사 결과와 수돗물 이용의 다양한 정보가 담긴 리플릿 형태로 발간돼 각 동 주민센터에 배부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품질보고서에는 △최근 1년 동안(2025년)의 수돗물의 원수 및 확인제(무료수질검사) △맑은물공급 현대화사업 등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전주시의 노력이 담겨 있다.

시는 이번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전주시 수돗물 생산과정 및 공급과정을 안내하고, 수돗물 관련 Q&A를 통해 각종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

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청정지역 용담호(원수) 물을 한국수자원공사 고산정수장에서 정수해 생산된 수돗물을 전주시 내 배수지로 받아 가정 및 사업장으로 공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환경부 먹는물관리법에 규정된 항목보다 한층 강화된 61개 항목에 대한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지난 1년(2025년) 동안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이 매일 마시는 수돗물이 안전한 것으로 입증됐다.

전주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의 수질 정보는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를 통해 월별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김인택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은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 관리로 시민들이 건강하게 365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린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 선화당

### 관공각

### 내아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정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